

영유아(0~6세)



최근 10년간 가장 큰 유행!



수족구병 발생주의!

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**손씻기 등**
개인위생 및 환자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!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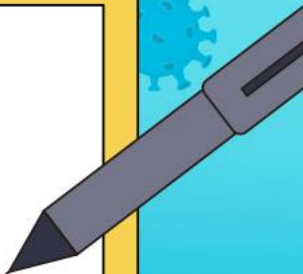
지역사회 내 집단면역력이 낮아지면서,
면역력이 약하고 개인위생이 취약한
영유아를 중심으로 **수족구병 유행!**



**예방백신이 없어 올바른 손씻기 등
개인위생수칙 준수 중요**



**어린이집·유치원 등 시설은
소독 철저, 환자는 등원 자제**



수족구병의 증상은 무엇인가요?

발병 후 2~3일 | 발열, 식욕부진, 인후통, 무력감 등

7~10일 내 | 호전되며 저절로 없어짐



간혹 중증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
아래의 증상을 보이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!



38도 이상의 고열



팔다리에 힘이 빠짐



구토, 경련 등

수족구병은 어떻게 전염되나요?



분변을 만진 손, 입을 통한 감염



환자의 침, 가래, 콧물 등
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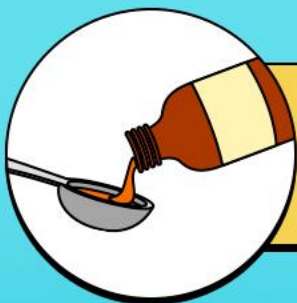
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 감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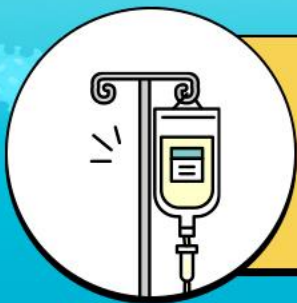
환자가 만진
오염된 물건을 통한 감염도 가능

수족구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?

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나,
증상완화를 위해 대증요법을 사용합니다.



발열·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해열 진통제 사용
* 소아에서 아스피린은 사용 금지



입 안의 궤양으로 삼키기가 어려워서
수분을 섭취하지 않아 심각한 탈수현상이
발생할 경우, 정맥용 수액 치료

수족구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?

① 올바른 손씻기

-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**30초 이상** 손씻기
- 기저귀 뒤퍼 후, 배변 후, 코를 풀거나 기침, 재채기 후, 환자를 돌본 후
- 특히 **유치원,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유아 관련자**

② 올바른 기침예절

-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**입과 코를 가리고** 기침하기

③ 철저한 환경관리

- 아이들의 **장난감, 놀이기구, 집기 등을 소독**하기(락스 1/10 희석)
-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**철저히 세탁**하기

④ 수족구병이 의심되면

- 바로 **병원에서 진료** 받고 **등원 및 외출 자제**하기 ○○



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손씻기 등
개인위생 및 환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!

영유아(0~6세) 층에서 수족구병이
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,
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의 소독 등
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를
당부드립니다!

